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 T/F」는 각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협조를 얻어 청소년 통일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일선 초·중·고 및 통일교육 교사, 정책자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기회 확대 노력, 통일교육 담당 교육 관계자 지원 강화, 청소년 통일교육 자료 보급 및 활용 증대, 통일교육 지원제도 및 예산 확충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한 해 동안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 초청연수(8회, 505명), 학교 관리자 대상 지역별 「통일강좌」(3회, 1,720명), 통일교육 교사 대상 워크숍(2회, 106명)을 개최하였다. 2010년에는 6월말 현재 학교 관리자 대상 초청연수(3회, 205명), 통일교육 교사 대상 워크숍(2회, 60명)을 개최하였다.

정부는 지역별 통일교육 담당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통일교육 사례·기법을 공유하며 학교통일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2009년에는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총 5회에 걸



통일교육 교사 워크숍 및 학교 관리자 대상 지역별 통일강좌

2010년 통일교육 시범학교 명단

구 분	학 교	소 재 지
서 울	공연초등학교	노원구 공릉3동
	전동중학교	동대문구 휘경동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구로구 공동길
대 구	학남중학교	대구시 북구 국우동
인 천	가정여자중학교	인천시 서구 살고지로
경 기	탄현중학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삼죽초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안성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금산동
강 원	대진중학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매산초등학교	강원도 홍천군 남면
충 북	주성고등학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소태초등학교	충북 충주시 소태면
충 남	천안용암초등학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대천여자중학교	충남 보령시 대천동
광 주	운남중학교	광주시 광산구 운남주공1길
울 산	언양중학교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초등학교	울산시 동구 동부동
대 전	대전관저중학교	대전시 서구 원암마을1길
부 산	엄궁중학교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동현초등학교	부산시 금정구 부곡1동
전 북	군산 흥남초등학교	전북 군산시 문화9길
	완산초등학교	전북 전주 동완산1길
	서흥중학교	전북 군산시 흥남로
	아영중학교	전북 남원시 아영면
전 남	신북중학교	전남 영암군 신북면
경 북	경산 봉황초등학교	경북 경산시 진량읍
	영천 신녕중학교	경북 영천시 신녕면
	구미 상모고등학교	경북 구미시 상모동
경 남	김해고등학교	경남 김해시 삼정동
	남해중학교	경남 남해군 남해읍
	용호초등학교	경남 창원시 용호동
제 주	서귀 중앙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광명로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현장

처 충남, 충북, 경북, 강원, 제주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각 지역 교육청 인사 및 초·중·고 통일교육 담당 교사 등 총 1,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남북관계 현안과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2010년에도 6월말까지 전북, 대전 지역에서 2회 개최하였다.

또한 전국 20개 초·중·고등학교를 통일교육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각종 통일교육 교재와 자료 및 맞춤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통일교육 모범사례가 초·중·고등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2010년에는 통일교육 시범학교를 32개로 확대하였다.

나. 체험·참여형 통일교육 확산

정부는 새로운 세대의 학습 수요 특성에 맞추어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자 참여형 통일교육 모델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서울지역 22개 학교(4,841명)를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 체험학습」을, 전국 32개 학교(7,784명)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학교통일

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울 및 전국 각 시·도 지역의 학교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통일교육의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2009년의 경우, 이러한 체험·참여형 통일교육에는 24개 초등학교 4,278명, 23개 중학교 5,850명, 7개 고등학교 2,497명이 참여함으로써 대상학교와 교육인원이 2008년에 비해 각각 54%(29개교 → 54개교), 60%(7,564명 → 1만 2,625명) 증가하였다.

2010년도에는 2~3개 그룹의 「통일교육 강사진」을 발굴하고 통일교육의 내용적 측면을 보완하여 현장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분단의 아픔을 느끼고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1996년 이래 시·도 교육청 및 각 지역 통일관이 주관하는 「전국학생 통일글짓기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09년도 전국 학생 통일글짓기 대회는 5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백일장, 학교장 추천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국 총 5,887개 학교에서 111만여 명이 참가하여 전체 학교수 대비 평균 53.1%의 참가율을 보였다. 이번 대회는 소설·일기 등 표현 형식이 다양화되고 북한이탈주민을 소재로 한 작품이 증가한 점이 특징이었다.

2010년에도 전국 학생 통일글짓기 대회는 5월 17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되었고, 전국 총 5,534개 학교에서 105만여 명이 참가하였다.

2010년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6.25전쟁 6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통일부에서는 625명의 국내외 청소년들이 6.25전적지와 전방지역을 답사하는 체험중심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인 「평화통일대행진」(7월 26일~7월 31일 예정)을 기획하였다. 이번 행사는 서울을 출발하여 강원도 고성, 양구, 화천, 철원, 연천, 동두천을 거쳐 파주까지 행진하는 동부경로와 강화, 김포를 거쳐 파주까지 행진하는 서부경로로 나누어 진행되며, 행사기간 동안 참가학생들은 「통일 골든벨」,

「평화올림 열린음악회」, 「화합의 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평화통일대행진」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평화의 소중함과 통일의 중요성을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다. 대학 통일교육 기반 확대

정부는 대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고 건전한 통일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 통일교육 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대학사회 내에서의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대학통일문제 연구소협의회와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009년 대학생 통일포럼은 서울대, 고려대, 한국외대, 중앙대, 경남대, 명지대, 성신여대, 원광대, 호남대, 인제대, 제주대, 춘천교대, 동국대, 선문대 등 15개 대학 1,540여명이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을 하는 등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통일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2010년에는 참여대학이 확대되어 6월말까지 15개 대학이 참여하였다.



대학생 통일포럼

또한 1982년부터 개최해 온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통하여 대학(원)내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도모하였다. 2009년도에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통일논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의 대학(원)에서 총 81명 학생이 67편의 논문을 응모하였고,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 7편의 입선작을 선정·시상하고 수상 작품집은 전국 대학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2009년 대학(원)생 통일논문 수상자 명단

구 분	주 제	성 명	학 교 명
최우수	북한의 관료 부패와 체제 안정성	정태은	북한대학원대학교
우 수	다문화시대 통일교육의 철학적 정초 연구	이성원	인천대학교
	북한 레토릭의 정치적 의미 연구	조석근	한국외대 정치행정전문대학원
장 려	북한의 위기관리 방식에 대한 연구	김미연	이화여대 대학원
	사회자본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미경, 장안지	안양대학교
	새터민들의 선거의식과 투표 참여	양효원	연세대 대학원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지성림	고려대 대학원

이와 함께 2006년부터는 남북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국의 각 대학 북한학과 학생들이 참가하는 「북한학과 합동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2009년 「북한학과 합동워크숍」은 ‘미래 지향적 통일비전에 대한 고찰’, ‘남북한 군사협상 의제 연구’, ‘북한이탈 주민의 경제적 적응’ 등을 주제로 8개 대학의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인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참석자의 대부분은 남북관계 상황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북한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라. IPTV 시대를 선도하는 학교통일교육 추진

정부는 미디어 세대인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IPTV를 활용한 통일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2010년 전국 24만개 학급에 구축될 「맞춤형 IPTV 교육서버」에 탑재할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통신 3사, 학교 일선 현장 및 IPTV·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IPTV를 활용한 통일교육의 기본 구상을 마련하고, 2010년에는 「맞춤형 IPTV교육서버」에 탑재할 다양한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용역에 본격 착수하였다.

학교 IPTV에 탑재할 통일교육 콘텐츠는 교과보조용 VOD, 재량활동용 Worksheet,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학교현장에서의 통일교육 실시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2010년 개발·보급되는 통일교육 콘텐츠는 학교 IPTV를 통하여 전국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흥미롭고, 신뢰할 수 있으며, 유효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사회 통일교육 지원

정부는 사회 통일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통일교육위원을 구성하고, 지역통일교육센터·통일교육협의회·통일관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민간 사회통일교육 기관·단체들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법적, 제도적,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토대로 기관·단체간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

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차관 회의 및 시·도 행정부시장 회의 등을 통해 공공교육훈련 기관의 통일교육 실시를 독려하였으며, 국방부의 통일교육 지원요청에 따라 2009년 2월부터 군 대상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군 대상 통일교육 지원은 각 군 본부의 협조 아래 통일교육원 교수와 통일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순회정책홍보팀이 각 지역의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국군방송과 국방일보 등의 매체도 활용함으로써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군인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0년에는 통일부 간부진, 통일교육원 교수 등이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여론 주도층 대상 정책설명회, 대학생 대상 특강 등을 실시하여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넓혀 나가고 있다.

가. 통일교육위원 운영시스템 개선

정부는 1987년 제정된 「통일교육전문위원관리규정」(통일부훈령)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강의능력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를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7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활동한 제16기 통일교육위원은 중앙 및 16개 시·도 협의회별로 총 1,14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주민 40만 명을 대상으로 271회의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2010년 2월 1일에는 제17기 통일교육위원 1,010명을 위촉하였다.

1987년 대국민 통일교육, 국민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출범한 통일교육위원회는 2000년 전후 통일 관련 시민단체 활동 증가, 국민계도 중심의 소양교육 감소 등으로 활동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변화된 시대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통일·대북정책



제17기 통일교육위원 중앙·지역협의회장단 회의

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충, 통일부와 지역간 유기적 정책 소통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09년 10월에 「통일교육 지원법」을 개정하고 2010년 4월에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일교육위원 위촉 및 활동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 조항은 2010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통일교육위원의 위상 정립 및 활동지원을 위해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고 통일교육위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나. 통일교육협의회 개선 및 지원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상호간 협력증진 등을 목적으로 2000년 12월 22일에 설립된 민간 통일교육단체 협의체이다.

통일교육협의회는 다양한 통일교육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 통일교육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 본부 및 분과위원회(시민, 여성, 청소년)는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 이해와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통일문제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회원단체 지원사업은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통일교육 사업을 공모하여 2009년도의 경우 43개 응모단체 중 평화문제연구소 등 33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이들 단체들은 강연·강좌 91회, 포럼·워크숍·토론회 22회, 경진대회 등 행사 7회, 통일기행·현장체험 18회 등 138회(1만 1,164명)의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학교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교감 등을 대상으로 통일강좌를 실시하여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교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통일교육협의회는 그동안 내·외부로부터 제기되어 온 협의회의 운영방식, 회원단체 지원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2009년 3월 통일교육협의회 운영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자체적인 개선노력을 하였다. 또한 회원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하는 등 회원단체의 통일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였다.

다.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원

정부는 지역사회의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통일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등 통일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역통일교육 관련 단체,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역통일교육센터는 2004년 부산과 광주 등 2곳을 시범 운영한 이후 2005년 5곳, 2006년 9곳, 2007년 이후 10곳으로 확대 운영해 왔으며, 2010년에는 19곳으로 확대하였다.

2005년 통일교육 지원법을 개정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역사회에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통일논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통일인식 제고에 기여해 오고 있다.

2009년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는 시민강좌, 통일교육 워크숍, 지역축제와 연계된 통일문화축제, 통일경진대회, 통일현장체험, 자료 제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등 총 236회의 통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성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역통일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전년도 교육실적, 사업·재정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라. 통일관 지원

통일관은 전국 13개 지역에 설치되어 북한·통일관련 자료 전시와 행사 개최 등 지역주민의 통일교육을 위한 체험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의 미래지향적 통일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 등 13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각종 전시물, 북한 관련 특수자료 및 영상자료 등의 전시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경기침체, 신종플루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층 및 실향민 등을 중심으로 약 250만 명이 통일관을 관람하였다. 2010년에는 6월말까지 약 110만 명이 통일관을 방문하였다.



오두산 통일전망대